

문학세미나와 나이트클럽



신동한 문학평론가

문학단체에서는 정기적으로 한해에 몇 차례씩 여러가지 문학의 문제를 주제로 삼아 문학세미나를 열고 있다. 그리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로는 대개 지방의 명승고적지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많은 회원들이 단체로 여행을 하게 되니 세미나의 문학공부도 공부지만 어떻게 이런 기회에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을 전환하는 오락에 빠져 보자는 유희의 시간이나 장소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다. 으레 세미나를 하는 고장에 도착하면 저녁에는 식사와 술을 하고는 어디로 갈까 망설인다. 우선 유희의 눈길을 끄는 곳은 샹텔리아 불빛이 휘황찬란한 곳에서 춤을 추고 술을 즐기는 나이트클럽이다. 그러나 이런 곳은 선불리 들어갔다간 바가지 요금에 감당못할 부담을 끌어안게 되기도 한다. 여간해서는 이런 곳에 들어갈 용기를 내기는 힘들다.

이러한 문학세미나와 나이트클럽에 얽힌, 내가 한참 옛날에 겪은 배꼽 빠지는 웃기는 이야기가 있다.

1970년대의 일이다. 문인협회에서는 그 무렵에도 각 지방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연례 문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었다. 그 해에도 많은 서울 문인들이 전세 버스를 나누어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숙소는 해수욕장으로 이름난 해운대의 극동호텔이었다. 버스에서 내린 일행은 우선 여장을 풀고 부산 문인들이 마련한 저녁 식사 장소로 가게 되었다. 도착한 곳은 역시 부산하면 생선회로 이름난 자갈치였다. 회집에 자리잡은 서울 문인들은 오래간만에 싱싱한 생선회를 안주로 소주잔을 기울이니 도도한 취흥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나도 권해 오는 술잔을 사양하지 않고 마시다 보니 어지간히 취해 왔다. 더구나 바닷가의 갯바람과 파도 소리가 어우러져 술맛이 더 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어지간히 마셔대고 나니 시간도 꽤 오래 되었다. 이제는 모두가 자리를 털고 숙소로 돌아가자는 바람에 같이 일어섰다. 버스를 타고 호텔 현관 앞까지 왔다. 그러나 술에 취한 사람에게는 이쯤해서 또 어디를 헤매고 싶은 심리가 도사리고 있는 법이다.

버스를 내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마침 호텔의 나이트클럽 간판이 눈에 띄었다. 서슴없이 나는 일행이 되었던 10여 명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선동했다. 사실 이렇게 호기를 부렸지만 내 호주머니는 빈털터리나 마찬가지였다.

버스를 내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니 마침 호텔의 나이트클럽 간판이 눈에 띄었다. 서슴없이 나는 일행이 되었던 10여 명에게 그곳으로 가자고 선동했다. 사실 이렇게 호기를 부렸지만 내 호주머니는 빈털터리나 마찬가지였다. 나에게 이끌려 술이 얼근하게 취한 일행은 나이트클럽으로 올라가 발을 들여 놓았다.

자리를 잡은 후 호화판 술자리가 벌어졌다. 휘황한 샹텔리아 아래에서 경쾌하고 달콤한 댄스곡이 밴드의 연주로 울리는 가운데 나는 양주고 맥주고 안주고 할 것 없이 닥치는대로 시켜대면서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에게는 홀에 나가서 춤을 추라고 권했다. 일행 가운데에서도 춤의 명수로 알려진 권일송 시인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물 오른 제비처럼 파트너가 되어준 여인을 끼고 춤의 세계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하도 춤을 잘 추는 바람에 문인 사이에서도 「권탱고」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질만하니 권 시인의 춤은 보는 사람의 넋을 빠지게 했다. 이래서 춤을 출 줄 아는 문인들은 너도 나도 춤을 추고 술도 마셨다. 그러나 마시고 노는 것도 좋지만 그 뒷감당이 문제인 것이다.

누가 이 엄청난 술값을 내느냐 하고 생각하니 보통일이 아니었다. 내가 가자고 했으니 책임은 나에게 있었다. 별수없는 묘책으로 어지간히 마시고 놀아제끼 후에 웨이터를 불렀다.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들고 온 계산서를 보니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엄청난 술값이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런 동요의 기색도 없이 침착하게 내일 아침에 지불할테니 받으러 오라면서 사인을 했다. 이것으로 그 자리는 모면을 했지만 앞에 닥치는 일이 압담했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세미나의 주제발표의 본행사가 있을 예정이었다. 나는 잠 자리에 들어 어떻게 이 술값지불의 해결책이 없을까 하고 여러가지 궁리를 하게 되었다. 결론은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 진퇴유곡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장소를 도망가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다음 날 새벽 일찍 부산에 사는 소설가 윤정규를 깨워서 슬그머니 함께 숙소를 탈출하였다.

구실은 허울 좋게 어제 너무 과음을 해서 해장을 하러 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동래로 달렸다. 그곳

부산의 해운대 문학세미나에서 일찍이 없었던 나이트클럽의 호화판 술자리를 무사하고 유쾌하게 끝마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쁘고도 즐거운 일이었다

에는 이제는 작고한 작가 향파 이주홍 선생덕이 있었다. 윤정규와 나는 향파 선생덕에서 아침부터 술상을 받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이트클럽의 술값문제는 아예 머릿속에 떠올리지도 않은채 주홍에 빠져들어 삼매경을 헤매이는 것이었다. 그곳을 나와서는 근처의 금강공원을 오락가락 하다가 금정사를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 유명한 파전 집에도 가서 술을 마시면서 하루종일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밤 늦게야 숙소인 호텔로 살머시 기어 들어갔다. 술이 잔뜩 취해 늦게 돌아온 나를 보자 모두 아우성이었는데 그날의 결과는 예상했던대로였다. 나는 술값을 문학세미나 개최의 총책임자인 조연현 문인협회 회장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술 마신 두뇌로는 회전이 빠른 처사였다고나 할까?

어쨌든 사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나이트클럽에서는 조회장에게 지불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던 것은 물론이다. 당황한 나이트클럽의 계산서의 사인을 받은 웨이터는 그날 세미나장을 누비며 근엄하게 주제발표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눈 앞에 계산서를 내밀며 사인의 임자를 찾았으나 헛수고였다. 결국 조연현 회장의 지시로 할 수 없이 그것은 문인협회의 경비에서 지출되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누가 그런 엉터리 사인을 했느냐는 것으로 한동안 시끌법석했다. 이 복새통에서도 나는 시치미를 뚝 떼고 잠자코 있었다. 사실 술이 모두 취해 있었고 자기의 주홍에 겨워 있었으니 누가 사인을 했는지 눈여겨 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내가 했다고 나설 필요도 없고 오히려 나서면 모두의 흥미를 깨게 되지만 할터이니 침묵만이 가장 상책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그 사건을 가지고 지껄여대는 가운데에서도 계산서를 한 사람, 한 사람 회원의 눈 앞에 내밀면서 확인을 받으려고 애쓰는 웨이터의 동작을 실감나게 늘어 놓으면서 깔깔거리며 주워섬기는 여류작가 정연희 씨의 동작은 더욱 일행을 웃음바다로 몰아 넣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도 그 술자리에 끼지 못한 패거리들은 그런 호화판의 노는 곳을 왜 빠뜨렸을까 하며 아쉬움과 불운을 달래가면서도 어떤 놈이 그 따위 짓을 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지만 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도 도착한 날의 자갈치 시장의 술과 나이트클럽의 술, 거기에다 다음 날 새벽부터 하루종일 도망다니면서 마셨던 술로 해서 몸은 자기 것이 아니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버스의 자

리를 지키며 달리게 되었다. 서울에 가까이 오자 겨우 조금은 몸을 추스르게 되었다. 버스를 내리자 나는 나이트클럽에서 멋있게 춤숨씨를 보여 좌중을 황홀하게 만든 「권탱고」, 즉 권일송 시인을 찾아 같이 동행하며 말했다. “서울 안착의 축배를 들자”

이 말에 그도 즉각 동의하여 둘은 단골 술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진짜 축배를 들었다. 즉 부산의 해운대 문학세미나에서 일찍이 없었던 나이트클럽의 호화판 술자리를 무사하고 유쾌하게 끝마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기쁘고도 즐거운 일이었다면서 통음했다. 그 술맛은 두고 두고 잊히지 않는 다른 어느 날의 술자리와도 비길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수 10년의 술자리 가운데에서도 인상적이면서도 이상야릇한 술자리의 한토막이었다고나 할까?

술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사랑은 자유를 빼앗아 버린다.

술은 우리를 왕자로 만들고, 사랑은 우리를 거지로 만든다.

- W. 위첼리(1640~1715, 영국) -